

앞 혹은 꺾은 가지에서 생강냄새가 풍겨 생강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나무는 낙엽활엽저목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번식방법과 품종개발이 미흡한 상태에 있지만 봄에 일찍 꽃이 피고 단풍이 아름다우며 다른 큰나무들과 화합성이 강해 큰나무숲 아래의 하층목으로 잘 자라는 등 조경수로서의 개발가치가 높은 수목이다.

나무 등이 속해 있는 녹나무과에 속한다. 수직적으로는 해발 100~1,600m, 수평 및 기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 및 중국의 난온대에서 냉온대지역까지 분포한다.

나무의 식별을 위한 분류적 특징을 보면 잎은 심장형으로 서로 어긋나며 길이 5~15cm, 넓이 4~13cm로 윗부분은 대개 3개로 갈라져 있다. 엽맥(葉脈)은 잎자루의 선단부에서 3맥으로 뚜렷히 앞끝을 향해 나 있다. 꽃은 꽃대가 없는 우산모양의 형태로 노란색을 띠며 열매의 지름은 7~8mm의 둥근 공모양으로 처음 녹색에서 성숙해감에 따라 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성숙말기에는 흑색으로 익어 계절적 관상가치가 대단히 높다.

유사종으로는 잎에 결각이 전혀 없는 둥근잎생강나무(*for. ovatum* Nakai), 잎의 뒷면에 털이 있는

털생강나무(*for. villosum* Nakai) 등이 있다.

나무의 성질은 낙엽활엽저목 또는 소교목으로 높이 3~7m, 가슴높이 직경 20cm에 달하며, 암수가 따로루이고, 개화는 2~4월, 열매는 9~10월에 성숙한다. 공해에 다소 약한 편이나 그의 다른 환경조건에는 상당한 내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내륙에서 해안지방까지 광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다른 나무들과의 화합성이 강해 큰 나무숲 아래의 하층목으로 잘 자라며 생육적지는 비옥적운한 사질 양토이다.

번식방법을 보면 대개 실생에 의하고 삽목이나 분주(分株)는 다소 곤란하다. 실생은 가을에 검게 익은 열매를 채취, 며칠간 물에 담가둔 후, 물러진 과육(果肉)을 물로 씻어 제거한다. 종자는 건조를 싫어하므로 종자선택 즉시 보습저온저장(保濕低溫貯藏) 또는

흙속에 매장한다. 정선된 종자는 1ℓ당 3,800립(粒), 1kg당 6,800립, 발아율은 25% 정도이다. 봄에 파종하려고 할때는 파종전 1~2일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m²당 180g 정도를 흩어뿌린다. 발아는 4월 하순에 시작하여 5월 중순에 끝나며, 발아시 기대본수는 m²당 300본, 득묘수(得苗數)는 200본, 평균묘고(苗高)는 10cm, 묘관갈이는 3월에 m²당 30~40본 정도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장속도가 느리므로 발아후 1년간은 그대로 둔후 3년째 봄에 옮겨 심으면 좋다.

식재는 보통 3년생 이상의 것을 택해 이른 봄 어린 눈이 나오기 전이나 늦가을에 심으면 좋고, 식재시 구덩이는 40~60cm의 깊이로 파고 밑에 퇴비와 계분을 넣고 흙을 5cm정도로 덮은 다음 묘를 심는다.

이식은 다소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하고 전정은 꽃이 진 후가 적

기이고 비료는 12~2월에 숙비(糞肥)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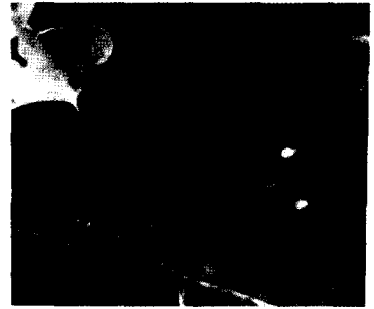
병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가끔 하늘소류나 나방류의 해충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의 방제법으로는 디프수용제 100배, 스미치온 300배, 메프유제 등을 줄기의 침입공에 주입하고 진흙으로 막아 두거나 성충의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기에 살충제를 줄기에 살포하고 피해목은 벌채 소각한다.

일반적 용도를 보면 열매에서 약 60%의 유지(油脂)가 얻어지므로 과거 우리나라 중부이남에서 아낙네들의 머리기름 대용으로 귀중하게 사용되어 왔다. 잎과 가지에는 옴시락톤이라는 방향성 정유가 있어 방향제로 개발 가능하며, 어린 눈은 차로 대용하기도 한다.

조경적 가치는 재빛색깔인 나무껍질, 짜릿한 향기가 나는 노란색꽃, 성숙시까지 3~4단계의 색깔로 변하는 열매, 봄을 가장 일찍 알리는 영춘화(迎春花), 아름다운 가을단풍 등 풍부하다. 하지만 아직 품종 개발이 미흡하고, 상록수를 제외하곤 아직 우리나라에 널리 자생하는 낙엽활엽저목류에 대한 조경적 인식가치가 부족하여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품종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 및 저목류에 대한 조경적 인식 가치가 변하면 현재 일부 이용되고 있는 정원목 및 공원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로수로의 이용도 적극 모색될 수 있는 앞

날이 밝은 나무이다.

정원에서는 큰 나무아래에 1~2그루의 단식(單植), 공원이나 도로변에는 군식(群植)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재빛도시빌딩숲하의 계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관상목으로나 생울타리용 및 옥상정원(屋上庭園)목이나 분재용으로 잠재적 개발가치가 풍부하다.^{1,2}



생강나무의 열매

이른 봄의 생강나무꽃

